

墨子思想에 對한 一考察 (三)

二千年前 中國의 空想的 社會主義者

安炳珠

三, 愛를 基礎로 한 社會改造

墨子の 兼愛說을 要컨대 無我愛, 沒我愛에 加차운 것이다. 卽 墨子の 世界的 利他主義는 功利를 超越하여 何等の □□를 取하지 안는 것이다. 그의 이른바 『我が 人을 愛하면 人이 亦是 我를 愛하고, 我が 人을 利케 하면 人이 亦是 我를 利케 하고, 我が 人을 害하면 人이 亦是 我를 害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方便上 例證한 말인지 모르나 沒我的, 無我的 愛를 말하는 以上 이런 方便說을 내세운 것도 一種의 矛盾이겠다.

그리하여 墨子は 愛와 함께 □□를 말했스나 그것은 □平 等に □은 愛, 濫에 傾한 汎愛를 防止키 爲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大體 義理를 分別치 못하는 愛는 盲目的이오 偏執的이오 私的이다. 墨子は 이 點을 憂慮하여 『義는 正이라. 下로부터 上을 正케 함이 아니오, 上에서부터 下를 正케 한다.』 또 『天下 --義 잇스면 治하고 義 업스면 亂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愛가 濫流하지 안도록 義의 □□를 高□하고 義理로써 愛의 □□을 中和하려고 하였다. 그의 非戰論과 가튼 것은 確實히 墨敎에 對한 特色으로서 愛에서 出發한 것이다. 卽 戰爭은 커다란 不□이다. 戰爭은 生産力을 激滅하고 民衆을 犧牲시킨다. 戰爭은 勝하더라도 □가 만코 利는 적다. 故로 戰爭은 結局 勝者의 悲哀를 □□하는 것이다.』고! 愛와 義로부터 戰爭의 必要가 絶對로 업는 平和 鄉! 이것이 墨子の 품은 『유토피아』이다.

그래서 墨子は 어데까지 愛의 福音을 널리 傳하는 同時에 社會의 貧富의 □隔을 一掃하고 共存, 共榮을 理想하였다. 이런 意味에서 墨子は 講義生活 下에서 □底的으로 勤儉力行을 高□하였다. 그가 儒敎의 宿命論을 打破하려고 한 것도 一은 이 때문이다. 『大蓋 强하면 만드시 英하고, 弱하면 만드시 辱한다』는 말도 勤儉力行을 一般人에게 勸하는 前□로 한 非定命論에 不外한다. 그리고 墨子の 勤儉力行主義를 實現할 初志에 □하여 當然히 取하지 안으면 안될 것은 그의 社會政策이다. 그것은 大體에서 消極的이나마 君主社會

主義의 形式을 가진 것이다. 墨子의 社會政策의 三綱領이라 할 것은 (一) 儉約--節用을 實行할 것, (二) 當時의 □□이라 할 만한 □□을 □할 것, (三) □□의 一樂自恣에 흐르지 안도록 非樂을 主張한 것이다. (一)과 (二)는 說明을 要치 아니하나, (三)은 □□을 생기 쉬운 謔임으로 족음 說明을 加하겠다. 墨子의 音樂 否認은 너무도 殺風景이지만, 그것은 音樂에 耽溺한 結果 자칫하면 享樂에 흐르기 쉬움으로 墨子는 이 點을 警戒한 것이겠다. 넘우도 單純한 生活을 主張하는 墨子로서는 音樂이 一種의 奢侈品으로 생각하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墨子는 農業을 積極적으로 獎勵하기 爲하여 商業의 必要를 □視하고, 甚至於 旅事業을 廢止하기를 主張한 바도 있다. 이것을 보면 墨子는 또한 農業社會主義者에 不外한다. 그러나 그것도 當時의 社會的 環境이 農業의 必要가 크던 時代인만치 理解할 만한 點이 업지 안타.

大關節 墨學 衰退의 原因은 以下에서 項을 긋쳐서 論述하겠지만, 當時 戰國時代에 잇어서 墨子의 非戰論과 兼愛說이 中國 支配群의 意思와 一致될 수 업섯슴은 도로혀 理의 當然하다고 할 만하다.

이맞게 墨子論理의 所謂 三表라든가 其他 別墨에 對한 考察 等 探究할 만한 點이 만흐나, 대강 이만 쓰고 끄트로 墨子學說의 衰退 原因을 略述키로 하겠다.